

기획특집 : 현대사와 한국종교 1

<한국종교의 세계사적 조명>

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「現代史와 韓國宗教」라는 주제하에 일련의 강연회와 학술회의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. 각 학기별로 특정의 소주제를 가지고 학계의 권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이나 연구논문 발표의 모임을 가지며, 그 내용을 본 『종교와 문화』의 기획 특집으로 신는다. 여기에 실린 강연은 1995년 봄 학기에 개최되었다. 1995년 가을 학기에는 <社會變動과 韓國宗教의 知性的 對應>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은 강연이 있었다.

- 최근덕 성균관장. “儒敎와 未來社會 : 韓國을 中心으로 한 問題 提起”. (9월 29일)
- 김수환 추기경. “교회에 왜 사회참여를 하였는가? : 70-8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”. (11월 23일)
- 유호준 목사. “민족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개신교”. (11월 24일)
-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. (1996년 3월 예정)

1996년 봄 학기에는 <現代 韓國宗教와 平信徒運動>이라는 주제로 유교와 불교, 천주교, 기독교, 그리고 민족종교의 평신도운동에 관한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위에 밝힌 1995년 가을 학기의 강연들과 함께 『종교와 문화』 제2집에 게재할 예정이다. 그리고 1996년 가을 학기에는 <現代 韓國宗教의 分析的 評價>라는 주제로 역사학, 정치·사회학, 문화인류학, 그리고 종교학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현대 한국종교를 분석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제4집에 게재할 예정이다.